

연세대 경영학과 합격!

강남대성학원 인문 1반 이수희

	국	수	영	동사	사문	입시결과
'19수능	3등급 (77%)	1등급 (88%)	1등급	1등급	1등급	
'20수능	1등급 (92%)	1등급 (96%)	1등급	1등급	3등급	'20 정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합격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20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이수희입니다.

<기본공부방법>

전 거의 강대 선생님들 수업만으로 공부했습니다. 수업 들은 건 꼭 그날 자습시간에 다 복습했고, 복습만 하다 자습시간이 끝나는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각 선생님들만의 노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수업에 얼마나 중점을 뒀냐에 따라 노트에 적힌 양이 다르긴 하지만 모든 선생님의 수업을 복습하고 노트정리 하긴 했습니다.

<수학>

일단 전 수학을 그냥 타고나길 못하는 것 같았던 학생입니다. 대치동에서 무려 3~4명(현우진, 정상모)의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고 19수능을 친 저의 후기는 “다 부질없다” 였습니다. 멋있는 문제들과 멋있는 풀이를 접한 것 뿐이지 그 문제와 풀이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부족하였고 그것을 나에게 맞게 변형하여 습득하는 자세는 그냥 없었던 고3시절이었습니다. 너무나 제 점수가 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공부를 하는 기본자세를 완전히 바꾸자고 생각하고 강대 선행반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제 수학 타입에 대해 설명하자면, 일단 이해를 되게 못하는 머리는 아닌 거 같은데 정말 너무나도 수학적 센스가 없습니다. 고등학교시절 많이 들었던 말은 수학풀이에 대해 너무나도 정직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센스로 문제풀이의 첫 번째 실마리를 잡아야 하고 또 센스 있게 빠른 풀이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너무나 정직하고 답답한 풀이를 이어나가는 게 제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과거 생각

“센스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머리를 만들 수는 없다. 고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개념공부를 확실히 하여 수학의 정석에나마 나올듯한 정직한 풀이라도 제대로 해보자.” 강도를 줄여나가긴 했지만 정말 개념공부를 여름방학 정도까지는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개념공부방법

선생님이 한번은 수업하시는데 집중적으로 하시는 쌤은 드물 겁니다. 집중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나 우리가 모를만한 개념 위주로 수업하시는 거니까 개념수업이라고 너무 대충 듣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물론 굉장히 지루하고 졸릴 때지만 딱 한 번만 열심히 들어봅시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수업을 듣고 쌤이 왜 하냐는 필기까지 하고 그 당일 자습시간에 한 일은 오늘 한 범위에 대해 쌤이 언급하지 않은 교재 속 다른 개념까지 공부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교재를 살펴보면 정말 구석진 곳들에 다양한 개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후 내가 몰랐던 부분이나 시험시간에 써먹기 위해 확실히 머릿속에 박아두기 위한 개념들을 개념공책에 옮겨 적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념공책은 수능 전까지,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더 열심히 읽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밑 줄이나 색칠공부를 통해 다음에도 읽어봤으면 하는 부분을 체크해두고 다음엔 그 부분만 읽어봤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마지막에 몇 부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공책을 만들어두고 풀어나가면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봐야 하는 양이 줄어들어 시간도 절약되고 집중해야 하는 부분도 줄어들어 효율적입니다.

+개념공부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친구들을 위한 글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생각보다 우리가 개념을 모르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 와 내가 이것도 모르고 수능을 봤다니 하는 몇 가지 개념들은 있겠지만 문제 푸는데 크게 방해되지는 않는 선일 겁니다. 다만 개념에 대해 너무 안일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20,21,28,30 등에 정말 기본 개념을 통해 첫 번째 실마리, 혹은 빠른 풀이로 가는 첫 번째 단계를 발견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수학타입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쯤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20 수능처럼 비킬러가 까다로운 시험에 더 효과적인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너무 걱정하시거나 여름 이후라면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마세요! 여름 이후에 개념공부를 시작한다면 기출 보면서 기본개념 복습이 낫다는 선생님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 과거 생각

“센스를 나 혼자 만들어낼 수 없다면 선생님들이 보여준 센스있는 풀이들을 다 외우자. 문과 수학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냐.”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제일 효과적이었던거 같아요. 다양한 센스있는 풀이를 외운 것뿐 아니라 외우다 보니, 많이 접하다 보니 조금 센스가 발달한 거 같아요.

풀이 외우기 방법

일단 문제를 쓰고 그 밑에 깔끔하게 정리된 풀이를 씁니다. 그리고 칼라풀한 색을 가지고 코멘트를 답니다. 문제든 풀이든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첨엔 깔끔한 풀이를 만들고자 다른 종이에 한 두 번 적어보고 정리하여 노트에 옮겨적었는데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그런 정성은 차차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풀이 정리 실력이 늘어난 이유도 있긴 하죠.)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져서 마지막 장에 예시 첨부합니다! 코멘트에 대해 더 설명하자면 풀이가 이 방향으로 풀리게 된 이유에 대해 제 자신이 납득하여 다음엔 그 방향으로 머리를 써보도록 하는 설명을 덧붙인다거나 이 풀이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을 옆에 따로 정리한다거나 하는 식의 글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정말 실전을 위한 노트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실전에서 나에게 필요한 한마디들이 담겨있는 노트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자세

어느 한 문제도 포기하진 말기. 정말 어렵고 시험엔 절대 안 나올듯한 문제라도 버린 문제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며칠이 걸리든 결국 이해해내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며칠 동안 그 문제만 봤다는 건 아니고 오늘 이해 안 된다면 내일 새로운 머리와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날도 안 된다면 그 다음 날이나 다음주나 끝까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식으로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국어>

전 연속 두 번 국어를 수능 때 최악의 점수를 받아서 할 말이 많진 않지만 그나마 19수능보단 많이 나온 점수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풀어보겠습니다.

비문학

초반(여름방학 전)동안은 자습시간엔 기출만으로 공부했습니다. 비문학 지문을 A4용지에 분석하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연결시켜보았습니다. 비문학의 구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정답과 오답선지를 만드는 원리는 무엇이 있는지. 정말 열심히 분석했습니다.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그리기라는 문제집으로 새로운 글을 접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나름 구조적으로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수능 때 가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기억이 안 났다가 보단 그런걸 기억 할 시간이 없이 그냥 막 풀었습니다. 과연 그러한 분석결과들이 제 무의식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수능만 빼곤 국어시험을 거의 항상 잘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 타고났고 작년 수능에서도 그게 발휘가 됐다면 그냥 타고난 감으로 푸는 게 최고긴 합니다. 하지만 전 작년 수능을 망해봤고 내 감이 수능 땀 작동 안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재수를 시작해서 감으로 풀지 않는 연습을 계속하였고 아무리 재수기간 동안 국어가 잘 나와도 수능 땀 제발 1등급만 나와라 하는 심정으로 공부했습니다)

문학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대로 기출분석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기출 분석 공부는 선생님들께서 설명해주는 방법 중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될 거 같습니다.

또한 정확한 풀이를 위해 따로 문학 용어 정리하는 노트를 만들어서 공부하고 복습하는 방법도 시도해봤는데 별 도움이 된 것 같진 않습니다. 사실 모의고사는 그렇게 정확한 용어정의를 요하는 경우도 있는데 평가원 시험은 그런 식으로 선지를 판가름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학에서 제일 도움되었던 것은 EBS 공부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자료를 주실 텐데 소설 줄거리를 주신다면 그냥 심심하거나 공부하기 싫을 때 읽어두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작년에 공부하기 싫어서 읽었던 비중요 소설이 수능에 나와서 도움이 됐습니다. 또 전 작년 국어시험 때 고전시가에서 한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고전시가 정말 열심히 외웠습니다. 모든 작품을 두세 번 정도는 읽어두었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작품들은 완전하게 외웠습니다. 근데 이번엔 고전산문에서 틀렸어요.

문법

문법은 정말 노력하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작년에 문법에서 두 개 정도 틀렸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개념을 배웠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방법은 한 선생님의 교재를 골라서 수업한 당일에 해당 부분을 그대로 노트에 베끼어 쓰면서 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생각 없이 쓰기만 하면 안 되고 집중하여 외우면서 써나가야 합니다.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은 체크해두고 여러 번 반복하고 수학노트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봐야 할 부분들을 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9평 이후로는 문법도 기출문제집을 따로 사서 공부했는데 (자이) 해설집까지 같이 공부했습니다. 해설을 보면 관련 개념이나 관련 뉴스(평가원에서 이젠 어떻게 이 부분을 판단하기로 하였다) 등을 같이 써두는 데 그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설을 공부했던 방법은 해설을 읽고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기출문제집에 다시 제가 써두는 방식이었습니다.

문법은 정말 외우는 공부라 마지막엔 기출문제(관련 해설도 내가 써두었다면 같이)를 오려서 간추려서 다시 만든 문법 노트에 붙여 수능장에 가져가 아침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능에서 제가 문법 노트에 붙여뒀던 기출 변형 문제가 나왔고 제 기준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법문제였습니다. 보통 평가원 기출만 많이 보는데 따로 자이스토리 같은 문제집을 사면 접해보지 못한 학평문제들도 많을 겁니다. 꼭 새로운 지식 습득 용이 아니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문법 지식 응용 연습 문제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영어>

영어는 제가 특수한 경우라 도움이 안 될듯하지만 제 경우를 설명하자면 초등학교 때 다녀온 유학 경험을 수능 때까지 우려먹었고 영어를 너무 빠르게 시키는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대치동 여고)

이러한 분을 위한 조언

영어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은 수업 복습 혹은 예습을 하세요. 그냥 읽고 한번 외우려는 시도를 해보세요. 하도 고딩 때 영어지문 외우기를 열심히 해서 수업이 있는 날 점심시간에 영어공부(그날 있을 테스트 준비)를 하는 정도의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수능 날 영어가 정말 안 읽히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담임쌤 생각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잘 나왔지만 수능 당일날 가장 짜릿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안일하진 마세요. 망한 친구들 많아요.

<사탐>

동사

동사는 다른 과목들과는 다르게 평가원 시험만 잘 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공부는 끝난 상태라는 가정하에 현역 때부터 했던 방식인데 많은 모고를 보고 분석결과 많이 틀리는 주제들을 뽑아 자세하게 정리하고 외웠습니다. 주제 예시: 한중연대, 울령의 전파, 불교, 무역, 학문, 일본의 근대화, 몽골제국, 베트남 전쟁 등등. 연도는 근대 이후 것만 열심히 했고 그 이전건 진짜 중요한 거만 외웠습니다. 너무 초반부터 빠르게 꼼꼼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처음 중요한 주제들부터 외우고 틀을 잡은 이후에 세세하게 들어가는 방식도 괜찮아요. 물론 작년에도 했다는 전제 하에.

+ 선생님들 교재가 정말 세세한 정보들이 많을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고 한번도 안 읽지는 마세요. 그래도 두 번 정도는 읽어보세요. 저도 안 읽었다가 막판에 한번 다 훑는다고 고생했어요. 근데 제가 동사 복은 좀 있었어요. 항상 시험 직전에 봤던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강대 다니는 내내 같이 동사하는 친구들로부터 너 그래서 어떻게 수능 보려고 그러나 했지만 뭐 항상 평가원은 50점이었어서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듣지 않았죠)

사문

그냥 제 말을 안 듣는 게 좋을 거예요. 망한 사람으로서 한가지 충고를 하자면 한 공부방법을 정해두고 계속 밀고 나가세요.(독학이나, 강대수업이나, 인강이나 등등) 즉 초반에 어떻게 1년간 공부할 것인지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사탐같은 경우는 국수영만큼 깊지는 않아서 한 방법으로 모든 범위를 제대로 공부하기만 한다면 어떤 방법이든 3등급이 나오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이것저것 너무 왔다갔다해서 기본개념이 흔들렸고 마지막에 실전 연습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특히 사문은 말장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장난을 많이 겪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장난으로 두 문제 날린 사람의 비루한 조언)

<제2 외국어>

전 1등급을 받을 생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능 채점하기 전까진.. 전 서울대 갈 줄 알고 2등급 받기 위해 선택했던 거라... 하... 수업시간에 가끔 옆 친구랑 장난을 치긴했지만(조용하게 필담을 주고 받으며) 수업시간엔 나름 선생님 말도 따라 해보고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9평 끝나고부터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알파벳 정도는 외운 상태였습니다. 기출로 공부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대충 감 잡아서 수능 땀 2등급 받았습니다. 즉 목표는 달성했는데 뭔가 이상하게 기쁘지가 않게 되어버렸죠. 제 2외국어 관련해서 담임쌤과 선생님 말씀을 실천하시는걸 추천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줄 겁니다.